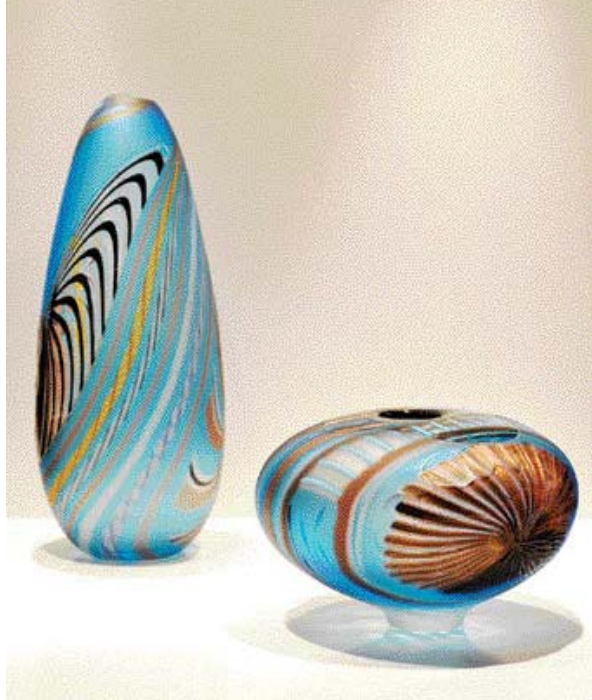




피노 시노레토 작 '게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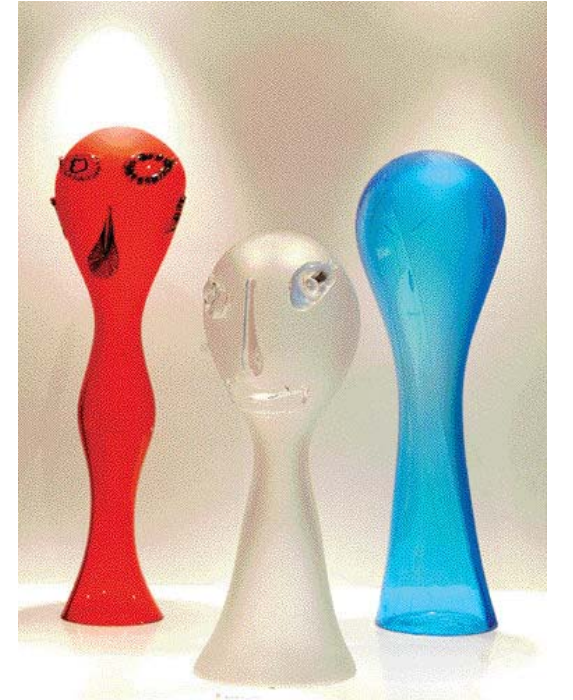


스키아본 가문의 유리병 연작 '올데리코'

장인의 혼과 열정이 빛은 유리 예술의 향연 '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'가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8월22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간다. 이번 전시는 유리 공방이 단 한 곳도 없는 광주·전남지역에 유리 공예를 전파하고,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으로 펼쳐진다. 인간이 유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선사하게 될 이번 전시의 대표 작품을 소개한다.
/사진=김진수기자 jeans@



스키아본 가문의 '네로네'



스키아본 가문의 '아토스'

영롱하다, 황홀하다 빛과 색의 '유리 마법'



시노레토 작 '해파리'

시노레토 작 '말'

◀ 최고의 유리 명장 피노 시노레토의 대표작 '말'. 유리 조각을 이어붙이지 않고, 입으로 부는 기법을 통해 가로 세로 각각 1.6m가 넘는 거대 작품을 만들어 냈다.

"아름다워라"

▶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통해 다양한 색상을 낸 유리를 조금씩 붙여 나가는 기법으로 창작된 스키아본 가문의 '유리병 연작'을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는 여성들.

